

일본 지적장애아(인) 발달보장운동의 사상적 원류*

홍정숙**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요약》

본 논문은 일본에서 장애아동 교육권보장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토가카즈오(糸賀一雄, 1914~1968)의 사상을 고찰하고, 그 특질과 한국 특수교육에의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토가의 생애와 중도지적장애아동과 관련한 업적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자기실현’, ‘발달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토가의 사상을 구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토가 사상의 특질이 도출되었다. 첫째, 이토가의 사상은 장애아(인), 특히 중도지적장애아(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보다 엄밀하게는 각 개인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 모든 장애인은 아무리 중도장애라도 인간으로서의 자기실현 및 발달 가능성과 발달의 기본적 도정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공통성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이토가의 사상은 장애아동 복지와 특수교육 실천을 통해 확립·심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이토가 사상의 한국 특수교육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이토가카즈오,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자기실현, 발달보장

I. 서론

근대적인 학교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이전까지 지적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는 소위 백치라고 번역되는 ‘idiot’로, 이는 “변한 자”, “쫓겨난 자”, “악마가 붙은 자”와 같은 뜻을 지닌 것이었다(김병하, 2002, 18). 역사적으로 볼 때 백치, 정신박약 등 굳이 그 예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적장애만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온 장애영역이 없으며, 이 용어의 변화는 지적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지적장애교육의 사회적 의의가 충분

* 본 논문은 대구대학교 2008년 신입교수 학술지원비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jshong@daegu.ac.kr)

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장애인을 유기했던 고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훈련의 대상으로, 혹은 훈련마저도 불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하였던 점에서 그러하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식이 모두 극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1975년 미국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HA)의 성립이 특수교육 역사의 신기원으로 불리는 중요한 이유는 중도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무상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은 점, 즉 아무리 장애가 심하더라도 교육의 대상이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했다는 점일 것이다. 1979년 일본의 양호학교 의무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도 지적장애 아동들의 교육권 자체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용 시설 등에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이소현, 박은혜, 2006). 특수교육진흥법에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취학유예·면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쉽게 그 권리가 포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술한 양호학교 의무화 이후 취학 유예·면제 수가 격감하게 된다²⁾. 양호학교 의무화를 견인한 배경에는 발달보장이나 권리로서의 장애아교육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본에서 발달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사용되고, 아직도 가설적 내용을 포함한다고는 하나, '발달보장이론'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제창된 것은 1960년대 이후였다. 이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복지·교육에 개척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지적장애인시설 오우미학원(近江学園)에서의 오랜 기간의 교육과 연구의 축적, 여기에서 분화된 중증심신장애아시설 비와코학원(びわこ学園)에서의 중도장애 요육(療育)실천에 의한 검증, 오오츠시(大津市)에서의 지역유아 검진활동 등을 통해 확립되었다. 확실한 것은 발달보장의 이념·사상을 이론화한 것은 이토가카즈오를 중심으로 하는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운동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田中昌人, 清水寛, 1996, p.311-3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장애아동 교육권보장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토가카즈오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질과 한국 특수교육에의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토가 사상은 표면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교육 흐름 가운데 더욱 뒷전으로 밀리기 쉬운 중도장애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천 운동의 지침에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이토가 사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단순한 특수교육의 방법만이 아니라 그 근본사상이며, 나아가 우리들의 인간관이며, 기본적인 인생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 이토가카즈오 저작집(I, II, II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 3권으로 구성된 이 저작집은 이토가 사후 13주기에 기획되어, 그 후 1982년(I, II)과 1983년(III)에 출판되었다. 총 1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저작집

에는 『복지의 사상』³⁾,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등 이토가의 대표작들을 비롯한 그의 저술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다.

II. 이토가카즈오의 생애

이토가는 청년기 사상의 기반을 가지고, 1946년부터 오우미학원에서의 지적장애아동 교육 및 복지를 실천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장애아교육·복지 사상을 모색하여 다양한 사상을 탄생시켰다(홍정숙, 2009). 여기서는 이토가 사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토가의 생애를 크게 오우미학원 설립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1. 오우미학원 설립 이전

이토가카즈오는 1914년 3월 29일 도토리시(鳥取市)에서 태어났다. 도토리 제2중학교, 마쓰에 고등학교를 거쳐 1938년 3월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토가는 중학교 시절에 절친한 벗이었던 마루야마후미오(丸山文雄)를 통해 기독교에 접하게 되었으며, 마루야마와의 우정과 이토가가 고등학교 시절 앓았던 질병(늑막염)의 영향으로 ‘급격한 영혼의 전환’(糸賀一雄, 1936)을 경험하였다. 이토가의 생애와 사상에 기독교 신앙은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토가 사상의 심오함과 논리성은 대학교에서 전공한 종교철학적 기초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대학교 졸업 후 이토가는 초등교육에 뜻을 세워 교토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다. 1939년 5월 징집으로 인해 이토가의 교육실천 기간은 1년 남짓에 그치고 말았으나, 이곳에서 오우미학원 설립에 이토가와 더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케다타로우(池田太郎)와 교분을 맺게 된 것은 커다란 수확이었다. 질병으로 징집면제가 된 이토가는 1941년 1월 시가현청에서 봉직하여, 사회교육주사보, 청년교육관, 비서과장, 병사후생과장, 경제통제과장, 식량과장을 역임하고 종전(終戰)을 맞이했다. 1943년에는 이케다의 소개로 교토시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던 타무라이찌지(田村一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케다와 타무라는 교토시의 ‘특수교육연구회’에서 친분을 쌓은 사이였고 이토가 또한 지적장애아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이였다. 이토가, 이케다와 함께 타무라는 오우미학원 설립의 주체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만남은 오우미학원 탄생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었다 평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이토가는 오우미학원 설립 이전에 기독교 신앙, 종교철학적 사색, 교육 실천에 따른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케다와 타무라라는 동지를 얻은 것은 오우미학원 설립이라는 열매로 귀결되게 되었다.

2. 오우미학원 설립 이후

이토가는 전후 이케다와 타무라의 요청을 받아 1946년 11월 오우미학원을 창설하여 원장이 되었다. 오우미학원은 가두에 흘러넘치고 있던 환경불량아, 즉 전쟁고아, 극도로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과 함께 지적장애아동도 수용하여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精神薄弱問題史研究会編, 1988, 172). 당시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특히 지적장애아동의 교육기관은 그 기능을 잃고 있었다. 지적장애인시설은 전쟁 전부터의 시설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16~17개가 존재할 뿐이었고 총 입소자수도 6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오우미학원은 전후 지적장애시설의 대표 예였던 것이다(京極高宣, 2001, 29).

오우미학원의 특색으로 ‘46시간 근무’ 내핍(耐乏)생활 ‘부단한 연구’ 라는 오우미학원의 3조건과 도토리 금고를 들 수 있다. 도토리 금고는 직원이 급료를 모두 모아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부나 국가의 보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시대와 함께 이 제도는 폐지되지만 형태를 바꿔 이 의지와 제도는 오우미학원 대목회(大木會)로, 전 직원에 의한 내부조직으로써 이어져갔다(滋賀県立近江学園, 1996, 154).

이토가가 오우미학원을 조국재건에의 가장 구체적인 길이라는 신념으로 설립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糸賀一雄, 1982a, 16).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은 타국을 침략하거나 자국민을 괴롭혀서는 안 되며, 특히 불우한 아동이나 장애아동이 무시되고 배제되어선 안 된다는 것,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로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토가는 강하게 결의하였다(高谷清, 2005, 122-123).

한편 오우미학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쟁고아 등은 적어지고 지적장애아동 중심의 시설이 되었다. 또한 지적장애아동들 중에서도 점차로 중도장애아동들이 늘어갔고 이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당시, 지체장애나 지적장애 시설은 점차로 정비되어 갔으나, 모두 훈련을 통해 사회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아동이 그 대상이었다. 시설은 자립훈련을 위해 입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중복장애아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高谷清, 2005, 241).

이와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이토가가 중도장애아(인)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그의 특수교육·복지실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이토가는 1950

년 5월 오우미학원 내 14명의 중도지적장애아동을 위해 오찌보료(落穂寮; 이삭기숙사)를 개설하고, 1952년에 중도 및 중증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쿠라구미(桜組; 벚꽃반) 편성, 1953년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스기노코구미(杉の子組; 삼나무아동반) 발족 등을 통해 체질개선 및 학원 내의 의료부와 연계한 교육실천에 몰두하였다. 이토가는 이러한 중도장애아동에 대한 지도노력을 통해 이 아동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오우미학원의 직원들의 인식변화 또한 초래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노력은 이 아이들의 지도 그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쏟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의 사이에 보다 깊은 공감과 교류가 생겨난다. 백치로 불리고 중도 치우로 불리는 이 아이들에 대한 학원의 평가는 점차로 세상의 그것과는 달라져 갔다. 적어도 학원 내에서는 이 아이들은 더 이상 특수한 존재가 아니었다. 같은 동료였다.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의미로 가치로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소박하게,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 아이들도 같았던 것이다(糸賀一雄, 1965, 282).

한편 이토가는 오우미학원의 중도·중증 장애아동들이 자가중독, 원인불명의 출혈, 간질발작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한 시설 건설을 서두르게 되었고 1963년 비와코학원이라는 중증심신장애아시설을 개설하기에 이른다. 비와코학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중증심신장애아시설로는 유일했던 동경교외의 시마다요육원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건설되었으며, 시마다요육원이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면 비와코학원은 교육에 중점을 둔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토가는 오우미학원, 비와코학원에서의 교육실천을 통해 다양한 사상을 주창하게 된다. 또한 이토가는 정신박약인복지법(현재, 지적장애인복지법)의 성립, 정신박약인육성회(현재, 지적장애인육성회), 조기발견·요육시스템 개발 등에도 공헌하였다(京極高宣, 2001).

Ⅲ. 이토가카즈오의 사상

이토가의 사상은 현재도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사상이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참작해 볼 때 그 선진성을 더욱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토가의 사상 중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자기실현’, ‘발달보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는 자전 형식으로 이토가가 저작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며, 이는 ‘복지의 사상’과 함께 이토가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토가는 1968년 9월 17일 타계 전일에 시가현(滋賀県) 아동복지시설 등 신입직원 연수회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강의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강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이것만은....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 아이들을...” 이라고 호소했다고 전해진다(糸賀一雄, 1972, 4).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정신박약아를 ‘세상의 빛’으로 삼고자 하는 염원은 오우미학원이 설립된 수년 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의 등과 같이 내걸린 이상이였다. 세상 가운데 쓰레기로 여겨지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쓸모가 없다는 낙인을 찍혀왔던 정신박약의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면 과대망상이라고 비웃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 보면, 그 생활의 주변에 흐르고 있는 이 아이들의 한없는 선의에 접해, 기쁨과 함께 깊은 슬픔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糸賀一雄, 1982b, 142-143).

오우미학원 설립 당시의 오우미학원가에도 ‘꺼서는 안 되는 세상의 빛’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기의 이토가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수년간의 지적장애아동 교육 실천의 결과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라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토가가 1966년 10월 8일 ‘전국 중증심신장애아 보호회’의 정례 강연에서 언급한 다음 인용문은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것이다.

제가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서’ 스스로 살아 가고 있는 모습, 태양이나 별과 같이 자기 스스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아들은 스스로 빛나지 못한다고 여겨져 왔지만 실은 스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糸賀一雄, 1983, 382).

당시 일본사회에서 장애아동, 특히 중도지적장애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시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토가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빛을’ 비취준다는 동정적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스스로 빛나는 소재 그 자체이기에 더욱 닦아 빛나도록 해야 하며,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糸賀一雄, 1972, 15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빛’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

복음 8장 12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마태복음 5장 16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소아과 의사이면서 이토가를 도와 비와코 학원장을 역임한 高谷清에 따르면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마태복음 5장 3~10절)를 가리킨다. 이토가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나아가 오우미학원에서의 생활과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온 경험으로부터 장애인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高谷清, 2005, 288).

겸허한 심정이 뒷받침된 정신박약인의 걸음은 아무리 느려도 그 존재 자체에서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나오는 것이다, 단순하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정신박약인이 발하는 빛은 아직 세상을 비추지 않는다, 세상의 현란한 문명의 광휘 앞에 이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아무것도 아닌 양 무시되고 있다, 이 빛은 이질적인 빛인 것이다, 문명의 광휘에 익숙해진 눈에는 이 이질적 빛은 빛으로 비취지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발하는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를 이 세상에 늘려왔다, 이질적 빛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진정한 평등과 자유는 이 빛을 빛으로 서로 인정하는 곳에 비로소 성립된다는 것도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했다(糸賀一雄, 1982b, 143).

과학적인 규명의 빛을 기대하면서, 구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의 신음소리가 가득 찬 현대 사회 가운데, 이 사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 중략 — 이에 대한 공감의 심정을 충분히 가지고, 새로이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 볼 일이다, 거기에 어렵겠하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닌,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빛은 새로운 ‘세상의 빛’이다, 이는 이 사람들이 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발해지는 것이다(糸賀一雄, 1982b, 145).

이상에서 보면 이토가의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라는 사상은 체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주장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오히려 그렇기에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라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과 호소력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아이들, 다시 말해 빛이 우리들을 매체로 세상에 전달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일 것이다. 이토가의 주장은 이 아이들을 빛 그 자체로, 즉 가치로운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소(多少)로써 진정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된 사회의 잣대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는 동정이나 소극적 이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는 적극적 사회연대의 사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2. 자기실현

일반적으로 자기실현이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재능, 잠재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久能徹·松本桂樹, 2001). 그렇다면 이토가가 말하는 자기실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토가의 자기실현의 사상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다음의 인용문을 단서로 하여 그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아이들은 아무리 중도장애라 하더라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들도 없는 개성적인 자기실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실현이야말로 창조이며, 생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바람은 중증장애를 가진 이 아이들도 훌륭한 생산자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糸賀一雄, 1983, 274).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토가의 자기실현 사상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실현의 토대로써 생명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통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토가는 “생명에 대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지적으로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엄연히 실재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들은 육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말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서 ‘나’로서 자각하고 있는 것”(1982a, 366)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이토가의 사색은 오우미학원의 아동들이 점차 중도화되면서 분명해졌다. 생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토가는 ‘자아 실존의 심오한 핵심’, 또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사실’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자아 실존의 핵심에 비취볼 때 만인(萬人)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糸賀一雄, 1982b, 142)고 주장함으로써, 중도장애아동을 이질적인 존재로 차별하는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토가는 ‘인간존재의 근원적 사실에 비취보면 동심원적’(糸賀一雄, 1982a, 103)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동심원적이라는 의미는 “비장애인이 가려 장애인보다 넓은 세계에 산다손 치더라도 이는 자아의 넓이의 좁음과 넓음이고,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단순성의 차이이며, 성격이나 감정, 지능 등 질적인 차이까지 들어 봐도, 그것은 개성적이라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糸賀一雄, 1982a, 103)는 것이다. 특히 중도지적장애에 대한 교육과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었던 당시의 일본사회에 이토가는 “중도지적장애에 대한 사회보장은 그 경제적, 사회 정책적 측면을 생각하는 근저에 이 동심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糸賀一雄, 1982a, 103)고 호소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중도장애아동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개성적인 자기실현을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토가에 따르면 “생명은 모두 표현적 생명, 자기 자신을 표현

해 가는 생명이며, 이는 환언하자면 자기실현이 가능한 생명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중중이어도 중중이 아니어도 모두 같은 것”(糸賀一雄, 1983, 380)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생명을 이토가는 실존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하곤 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존’은 ‘개별자로서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를 말한다. 즉, 이토가는 ‘사람이 살아서 쉬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과 같은 사전적 의미에서 생명을 논한 것이 아니라, 다음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도장애아들을 단순한 생명활동으로 삶을 지탱하는 이들이 아닌, 주체적·의욕적 존재로, 개성적 자기실현이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언뜻 보면 산송장과 같다고도 여겨지는 중증심신장애의 이 아이가, 단지 무위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이 살아가려 필사의 의욕을 가지고, 자신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아이의 생활의 깊은 곳을 보지 못했던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중증장애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눈이 중중이었던 것이다(糸賀一雄, 1983, 111).

이어서 이토가는 뇌성소아마비로 인해 누운 채로 일어나지 못하며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했던 15살의 남자아이가 기저귀 교환을 할 때, 온 힘을 다해 허리를 조금이라도 들려는 것이 교사의 손에 전달되었고, 이에 대해 교사가 자신의 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糸賀一雄, 1983, 111). 즉, 이토가는 이러한 행동을 중증심신장애아동의 개성적인 자기실현의 관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일화의 교사 또한 이 아동의 표현적 생명, 즉 자기실현을 통해 일종의 변화를 체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경우 교육이 문화적 전달로 일컬어지지만, 주체성이 결여된 전달은 주입식이 되어 버리듯이 교육의 핵심은 교사와 아동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해 가는 과정일 것이다. 특수교육이건 일반교육이건 이토가가 말하는 자기실현을 돕는 과정이며, 이는 장애 정도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기저귀 교환 일화에서 보이는 아동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 또한 일종의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이토가가 제시하는 관점들은 특수교육이 장애를 극복해서 일반아동에게 가능한 한 근접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오인될 여지를 불식시키고, 지적으로 아무리 중도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훌륭한 인격형성이라는 교육목표에 일말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저귀 교환 밖에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감을 얻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귀 교환’을 구체적인 예로 중증심신장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일을 설명

하는 中村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즉 기저귀 교환은 대인관계가 미숙한 아동에 대해서는 대인관계 성립의 기회가 되고, 음성언어획득이 극히 곤란한 아동에게는 보완대체의사소통 획득의 기회가 된다. 기저귀 교환은 단지 작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 작용의 소재=교재가 되기 때문에 제반 영역에 걸친 전문적 지식 또한 필요한 일인 것이다. ‘기저귀 교환’이라는 작업을 아동의 실태에 맞춰가며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활동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중증심신장애아교육이 단지 가정의 양육이나 보호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다(中村滿紀男, 1988).

이와 같은 中村의 주장은 기저귀 교환이라는 교재를 매개로 한 학생의 변화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이토가는 아무리 중도장애아동이라도 개성적인 자기 실현을 한다는 교사의 깨달음 내지 인식변화에 더욱 주목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이토가 자신이 교육실천을 통해 배웠다는 다음의 진술에도 여실히 묻어나고 있다.

세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중도나 중증 아동들도 한 명 한 명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이 아이의 생명은 정말 귀중하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 개성 있는 이 아이의 삶에 공감하고 공명하게 되는 것이다(糸賀一雄, 1983, 111).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자기실현을 중도장애아동의 생산 활동으로 파악한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일반적으로 중도지적장애아동들은 보호의 대상이 될 뿐 사회에 유용한 생산 활동에 종사한다고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토가는 “자신의 외부의 것을 자신의 내부의 것의 표현 재료로 삼는” (糸賀一雄, 1983, 380) 자기실현을 창조이며 생산이라 주장함으로써 중도지적장애아동들도 사회의 훌륭한 생산자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토가는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을 자기실현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토가는 리ハビリ레이션(rehabilitation) 대신에 하빌리테이션(habilitation)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귀라는 리ハビリ레이션의 개념은 사회효용주의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 관점에서 보는 한, 이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인생, 그 사람들의 생명의 빛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糸賀一雄, 1972, 164). 이토가는 생산 사회에서 생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하빌리테이션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糸賀一雄, 1983, 373).

이와 같은 자기실현의 사상은 이토가가 오우미학원에서 중도지적장애아동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한 비와코 학원의 중도장애아동을 가까이 접하면서 형성되었다. 스스로 돌아눕지도 못하거나 무표정으로 일관해 보이는 중도장애아동이 주위의 환경에 반응하고 스스로 관계하려는 의욕,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토가는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가 심한 아동은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인격이 무시되고 교육이나 의료적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따라서 이토가는 이 아이들의 발달의 영위가 보장될 것과 이를 보장하는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발달보장 사상을 주창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토가의 발달보장 사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발달보장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발달보장’의 이념은 직접적으로는 지적장애아 시설 오우미학원에서의 긴 시간 교육과 연구의 축적을 기반으로 하며, 나아가 오우미학원에서 분화된 중증심신장애아 시설 비와코 학원에서의 실천적 검증과 지역 영유아 검진활동 등을 통해 성립하였다. 이 발달보장의 이념·사상은 1960년대 후반에 전국장애인문제연구회(1967년 8월 결성) 탄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론이 되었고, 전국장애인권리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발달권 보장 사상으로 발전해 갔다(清水寬, 1981, 223-224). 즉, 이토가의 발달보장 사상은 오우미 학원 등에서의 실천의 축적 가운데 확립된 것이며, 특히 만년에 도달한 사상으로 알려져 있다(清水寬, 1981).

그렇다면 이토가가 말하는 발달보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물론 ‘발달’ 또는 ‘발달보장’은 이토가 이전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는 개념이다. 발달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철학, 생물학, 교육사상 등에서 탐구되어왔다. 堀尾輝久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 즉 아동이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속된 과정이 아니라 발달의 단계가 존재하며, 이 단계를 구분 짓는 것은 발달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다. 즉 발달에는 비약이 있다는 것이며 연속적임과 동시에 비연속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양적인 확대가 그 질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양으로부터 질적인 전환과도 같은 변증법이 그 발달의 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발달이라는 현상, 이를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로 말하자면, 아동이 끊임없이 학습을 계속한다거나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더해져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과정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 부분의 변화가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켜가며, 나아가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의 집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분의 변화는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관점, 즉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인 것이다(堀尾輝久, 2004).

이러한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사상적 배경이 있어서 페스탈로치 이래의 교육학 전통과 함께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한 마르크스나 엥겔스에 의한 인간

의 ‘전면발달’ (total development) 실현이라는 이상주의적 교육관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京極高宣, 2001, 168). 그러나 이토가의 경우 인간의 발달을 장애아(인)에게, 나아가 중증 장애아에게 초점을 두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사상적·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중도장애아동의 발달은 정지되거나 극히 미미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이러한 바탕에서 공교육으로부터 이들을 자연스럽게 배제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토가는 중도장애아동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발달의 도정(道程)을 걷고 있으며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희망 어린 마음의 지주(支柱)란 무엇일까? 내가 장애아동과의 공동생활 가운데 배운 많은 것 중 하나는 세상이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이 아이들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만인과 같은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인간으로서 발달의 도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이었다 — 중략 — 발달은 수직의 빈약한 발달이 아니라, 이를테면 수평의, 즉 모든 발달단계 가운데 무한히 퍼져가는 미지의 발달 가능성을 간직한 것으로서 이해되는 것이다(糸賀一雄, 1983, 293-294).

이 모든 발달단계 가운데, 오히려 발달단계 그 자체는 수평적 확대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 확대란 무엇인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그 사람의 개성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개성이 모든 발달단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개성적으로 쑥쑥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糸賀一雄, 1983, 379).

이처럼 이토가는 중도장애아동이라 해도 인간으로서 발달의 도정을 걷는다고 하여 수직적 발달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각 발달단계에서의 수평적 확대라는 무한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고 풍부한 개성이 형성된다고 호소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도장애아동은 누구나 걷는 발달의 도정을 동일하게 걷고 아무리 사소해도 그 질적 전환기를 풍성하게 할 것, 그리고 관계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발달적 교감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할 것, 이것이 사회 가운데 중증심신장애와의 연계를 강하게 해 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비와코학원에서 죽음과 직면한 한계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 발달의 단계를 충실하게, 힘껏 극복해 가는 모습을 대함으로써 우리들은 한없는 힘과 희망을 부여받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야말로 국가, 사회의 힘이 동원되어도 좋은 것이다. 실은 이 모습은 정신박약아나 중증심신장애아에게만 보여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1살은 1살로서, 2살은 2살로서 그 발달단계는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힘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1살은 2살이 아니라

고 해서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다. 각각의 단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이를 풍부하게 충실하게 하는 것 이외에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糸賀一雄, 1982a, 168),

이와 같이 이토가는 중도장애아동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힘이 동원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모든 인간 발달의 권리를 지켜 가는 것, 사회적으로 보장해 가는 것, 이러한 것을 발달보장이라고 생각해도 좋다”(糸賀一雄, 1983, 256)고 단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모든 인간의 발달보장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토가의 발달보장은 ‘아동의 다면적인 발달에 대한 권리보장이며, 교육보장에 한정되지 않고 장애의 조기발견, 조기교육 등을 위한 건강검진 등 또한 발달보장이라는 목표에 대한 수단의 하나로 규정’(糸賀一雄, 1982b, 138)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이토가의 발달보장의 인식은 이토가의 사후에도 田中昌人 등이 리더가 되고, ‘발달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한 전국장애인문제연구회 등의 활발한 운동과 개별적인 이론화가 다양하게 도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京極高宣, 2001, 170).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토가의 생애와 중도지적장애아동과 관련한 업적에 대해 살펴보고,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자기실현’, ‘발달보장’을 중심으로 이토가의 사상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토가 사상의 특질을 제시하고, 한국 특수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이토가의 사상은 장애아(인), 특히 중도지적장애아(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보다 엄밀하게는 각 개인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토가는 장애인의 문제를 우리들의 인식변화나 사회변화의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장애인식의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이 강조되기 이전에 이미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인식에 토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각 개인의 자기성찰을 강조한 점은 이토가 사상의 중요한 특질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아이들을 유기(遺棄)하는 것이 당연했던 고대로부터 불쌍하므로 살려두자는 중세를 거쳐, 근세부터 현대는 시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것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가운데 고대도 중세도 근세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도달한 경지임과 동시에 지금 현재도, 그리고 언젠가도 이는 일종의 싸움이다. 낡은 사,

상과의 대결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현대 가운데' 등과 같이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대결은 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사건이지 않을까(糸賀一雄, 1982b, 142).

둘째, 모든 장애인은 아무리 중도장애라도 인간으로서의 자기실현 및 발달 가능성과 발달의 기본적 도정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공통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토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통성을 강조한 점은 이들을 이분법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 파악한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토가의 사상은 '교육불가능'으로 여겨져 학교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중도장애아동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본문에서 제시된 이토가의 사상에 따르면 인격형성이라는 교육목적은 장애의 유무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토가의 사상은 중도장애아동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간의 발달 단계의 어딘가의 지점에서 발달을 향해 활동하고 있으며, 자기실현의 주체적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점 등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셋째, 이토가의 사상은 실천을 통해 확립·심화되었다는 것이다. 吉田久一(1974)의 평가와 같이 '이토가는 이론을 중시하였으나, 그 본질은 실천가이며 더구나 많은 실천가와 차이는 이론이나 사상이 실천의 동기와 지침이 됨과 동시에 실천에 의해 이론이 견고하게 되었다'(p.384)는 점이다. 즉, 본문에서 다룬 이토가의 사상은 오우미학원의 아동들이 점차 중도화됨에 따라 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이념으로써 형성되었으며, 오우미학원과 비와코학원에서의 교육과 치료활동을 통해 더욱 확고한 사상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이다.

발달보장운동의 사상적 원류가 된 이토가 사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한국 특수교육에의 시사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특수교육 관련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념과 논리를 확립하고, 아울러 발달보장이라는 요구와 주장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실천을 강조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1967년 8월에 발족된 전국장애인문제연구회가 발달보장의 이념을 수용하여 권리로서의 장애아교육 운동을 전개해 갔다. 발달보장이나 권리로서의 장애아교육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취학유예·면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각지에서 불취학 아동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러 이유로 채택인 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일본헌법 제5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 혹은 교육권 박탈이 결과적으로는 생존권 박탈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인해 미취학을 없애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것이다(中村滿紀男, 荒川智, 2003, 144).

일본에서는 2009년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합해 3,336명이 취학유예·면제 학생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유예·면제자수는

81명에 불과하다(文部科学省, 2010).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유예자수는 9,824명이며 이 중 1,385명이 장애를 그 이유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⁴⁾. 일본은 중학교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인구대비로 보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수치가 곧 교육권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취학이 교육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중도·중증장애아(인) 교육에 대한 철학을 확립하고 그 실천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토가는 본문에서 밝힌 대로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자기실현’, ‘발달보장’ 등의 사상을 통해 중도지적장애아동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아무리 발달의 차원이 낮은 아동이라도 교사가 아동과 공감관계를 구축하여 그들의 제약·발달 등의 실태를 바탕으로 아동과 농도 깊은 상호작용을 전개하는 가운데,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아동의 자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토가의 사상은 일본 지적장애아(인) 발달보장운동의 사상적 원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일본의 경우, 1988년에 “인물로 엮는 장애인 교육사[일본편](人物でつづる障害者教育史[日本編])”를 펴낸 것을 비롯하여 이토가 카즈오 저작집 발간에서 보여 지듯이, 특수교육의 철학과 방법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고 그들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한국 특수교육의 철학적 정체성은 결국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연구를 통해 확립가능하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후대에 이어갈 특수교육사상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여겨진다. 또한 이토가 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도·중증장애아(인)의 교육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이들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활동과 이를 교육현장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발달은 교육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적절한 교육과 학습경험을 통해 구현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1)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맹학교·농학교·양호학교로 구분되어 있던 일본의 특수학교제도는, 2007년 4월 1일부터 ‘특별지원학교’로 통일되었다. 양호학교란 지적장애, 지체장애, 병·허약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를 총괄하는 명칭이었다. 일본에서는 맹학교·농학교와 달리 양호학교의 의무화가 늦어졌으나, 1971년부터 73년에 걸쳐 양호학교의 정비 방향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양호학교를 의무 교육 안에 포함시키는 시행 기일이 1979년 4월 1일로 결정되었다.

2)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유예·면제자수를 1960년부터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0년 26,998명, 1965년 22,383명, 1970년 21,283명, 1975년 13,088명, 1980년 2,593명, 1985년 1,388명, 1990년 1,238명, 1995년 1,511명, 2000년 1,809명, 2005년 2,436명, 2009년 3,336명을 기록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0).

3) 『복지의 사상』의 경우, 1968년 출판 이후 현재 67쇄까지 판을 거듭하고 있으며, 오토타케에 의한 공전의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의 400만부가 출현하기까지는 일본 특수교육·사회복지계의 최대 베스트셀러였다.

4)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5,623개 초등학교 중 조사에 응답한 3,879개 학교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취학유예아동 42,285명 중 7,822명이 장애를 그 이유로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김병하 (2002).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이소현, 박은혜 (2006).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 홍정숙 (2009). 일본 지적장애아(인) 교육·복지의 선구자 이토가카즈오의 청년기사상과 공감 사상의 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213-235.
- 糸賀一雄 (1936). 文雄君の追憶-円さんを偲ぶ, 北陸之教壇第六九号.
- 糸賀一雄 (1965). この子らを世の光に. 柏樹社.
- 糸賀一雄 (1967). ある事業家の軌跡-近江学園をめぐる20年-, 福祉大学評論, 第2号.
- 糸賀一雄 (1968). 福祉の思想. 日本放送出版協会.
- 糸賀一雄 (1972). 愛と共感の教育. 柏樹社.
- 糸賀一雄 (1982a). 糸賀一雄著作集Ⅰ. 日本放送出版会.
- 糸賀一雄 (1982b). 糸賀一雄著作集Ⅱ. 日本放送出版会.
- 糸賀一雄 (1983). 糸賀一雄著作集Ⅲ. 日本放送出版会.
- 糸賀記念会 (1970). 追想集糸賀一雄, 柏樹社.
- 京極高宣 (2001). この子らを世の光に: 糸賀一雄の思想と生涯. NHK出版.
- 滋賀県立近江学園 (1996). 消シテハナラヌ世ノ光-近江学園創立50周年記念誌.
- 清水寛 (1981). 発達保障思想の形成-障害児教育の史的探求-. 青木教育叢書.
- 精神薄弱問題史研究会編 (1988). 人物でつづる障害者教育史(日本編) 日本文化科学社.
- 高谷清 (2005). 異質の光: 糸賀一雄の魂と思想. 大月書店.
- 田中昌人, 清水寛編 (1996). 発達保障の探求. 全国障害者問題研究会出版部.
- 中村満紀男 (1988). 重症心身障害児の教育について-若干の基本的問題を中心にして-, 秋田大学教育学部教育研究所所報第15号.
- 中村満紀男, 荒川智編著 (2003). 障害児教育の歴史. 明石書店.
- 野上芳彦 (1970). 「糸賀一雄氏とその思想-日本における心身障害児教育の先駆者」, 『京都精華短期大学木野評論』創刊号.
- 久能徹, 松本桂樹 (2001). 心理学入門. ナツメ社.
- 堀尾輝久 (2004). 子どもの発達の視点とその歴史的形成. セガン知的障害教育・福祉の源流-研究と大学教育の実践-, 257-272, 日本図書センター.
- 文部科学省 (2010). 学校基本調査.
- 吉田久一 (1974). 社会事業理論の歴史. 一粒社.

Philosophical Origins of Movement for
Guaranteeing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Japan

Hong, Jeong Suk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reviews thought of Itoga Kazuo who was an impetus to the movement for guaranteeing educational righ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Japan. Furthermore, it aims to discover particularities of his thought as well as potential implications for special education in Korea. To begin with, I delineated Itoga's life, focusing on his accomplishments related to children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Next, I examined aspects of Itoga's thought around "let these children be the light of the world", "self-realization", and "guaranteeing of development". As a result, I drew particularities of Itoga's thought as follows. First, Itoga's thought urges us to change our percep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including adults), particularly of children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including adults), and specifically each individual's change towards them. Second, Itoga emphasizes that everyone with disabilities, regardless of it being severe intellectual or not, has the potential for self-realization and development as human beings and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ose without disabilities in a basic course of development. Third, Itoga's thought was established and deepened through welfar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actice of special education. Finally, Itoga's thought suggested implications for special education in South Korea.

Key Words

: Itoga Kazuo, let these children to the light of the world, self-realization, guaranteeing development

논문 접수: 2010. 11. 02 심사 시작: 2010. 11. 10 게재 확정: 2010. 12. 15

